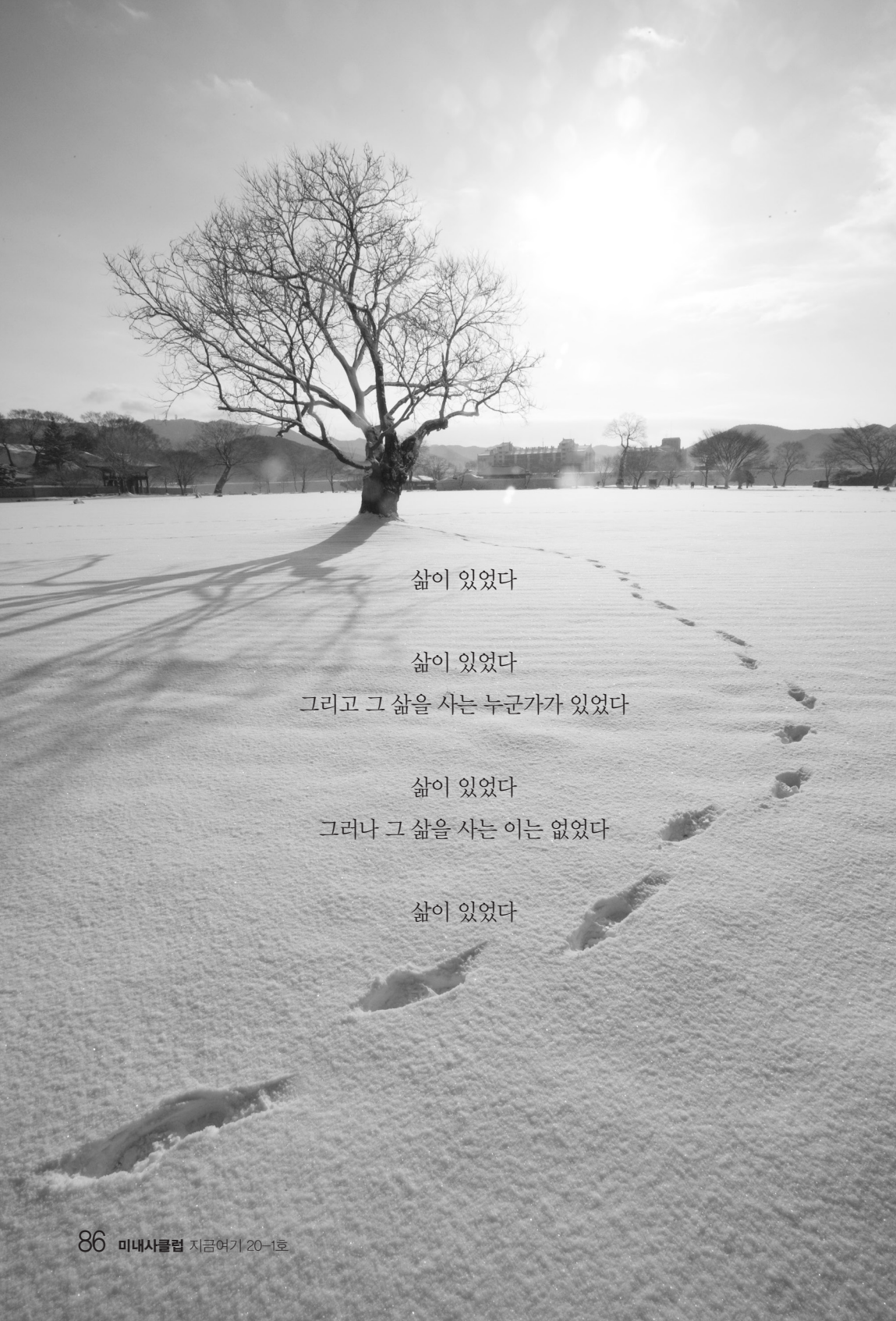


분리라는 환상

| 빌리 도일 | 김연주 옮김 |

마음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 그러나 가슴으로는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아름다운 비유로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편집자 주).





삶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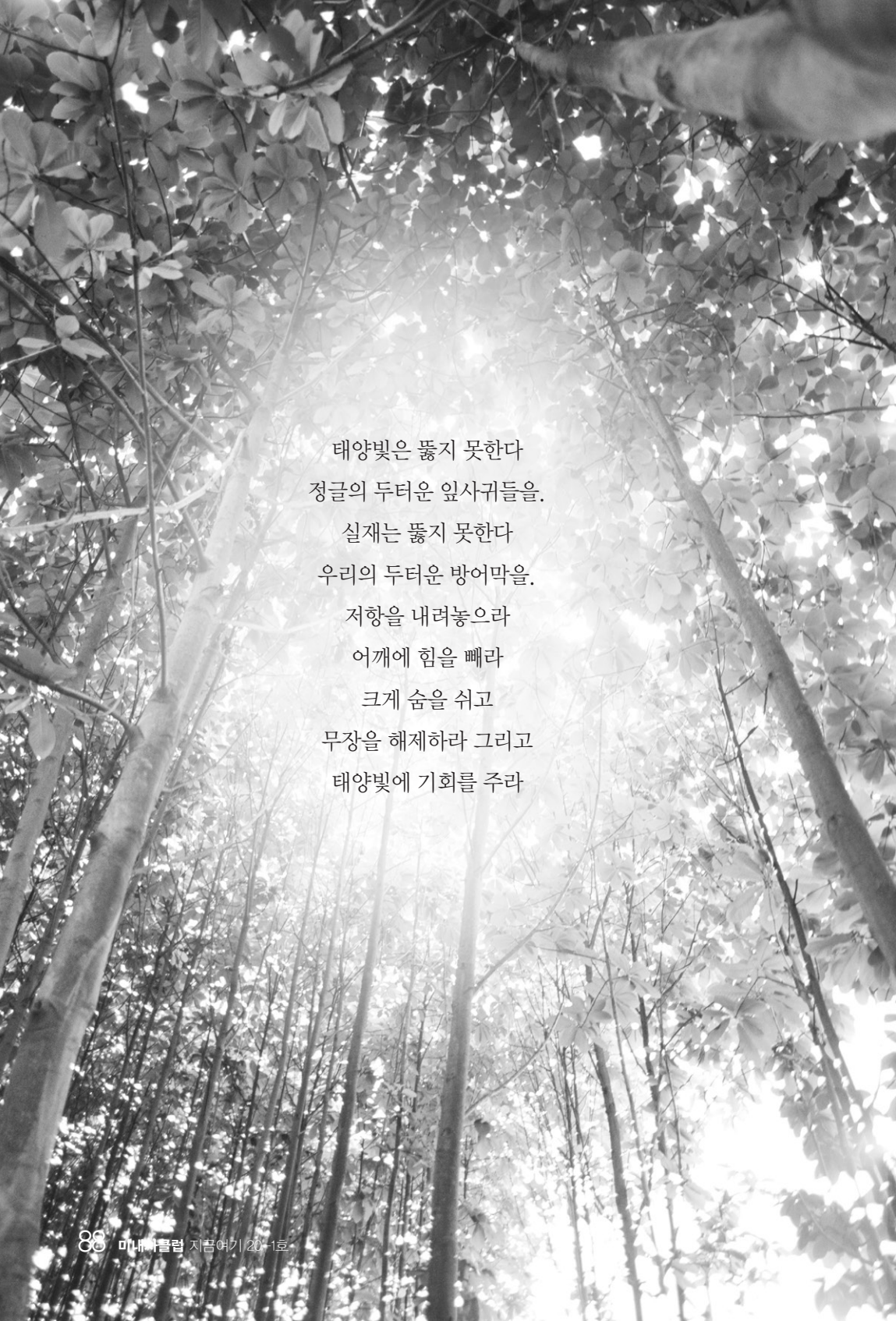
삶이 있었다
그리고 그 삶을 사는 누군가가 있었다

삶이 있었다
그러나 그 삶을 사는 이는 없었다

삶이 있었다



질문과 함께 살 수 있을까
결코 손대지 않은 채로
해가 떠오르기를 기다리되
빛깔을 미리 짐작하지 않고
모름 속에서 살며
들숨을 기다리고
날숨과 함께 스러지며
질문이 일어나게 두고
대답이 흘러나오게 두면서



태양빛은 뚫지 못한다
정글의 두터운 잎사귀들을.
실재는 뚫지 못한다
우리의 두터운 방어막을.
저항을 내려놓으라
어깨에 힘을 빼라
크게 숨을 쉬고
무장을 해제하라 그리고
태양빛에 기회를 주라

왕의 식탁에 초대받고서
오늘 끼니를 걱정한다.
신을 앞에 두고서
사원에서 경험한 힘을 말한다.
신의 품에 안겨서
신을 발견하는 방법을 의논한다.
우리가 바로 참나이거늘
참나가 되려면 어떻게 닦아야 하는지 묻는다.
이 무슨 코미디인가



어디선지 모르게 불현듯 솟아나는 말
표현할 수 없는 것을 드러내는 말
환영을 깨뜨리고 개념을 녹여버리는 말
더 이상 할 말을 남기지 않는 말
모든 것을 고요히 쉬게 하는 말
마음으로 붙잡을 수 없는 말
심연에서 메아리치다가
마침내 침묵만을 남긴다

물 속에 있는 물고기가
목이 마르다 하니, 카비르Kabir*가 웃었다

피꼬리가 노래하는 법을 물어오면
내가 무어라 말하겠는가

당신을 만나러 갔는데 당신이
'그 사람은 여기 없소' 한다면
그걸 어떻게 믿을 것인가

참나가 참나를 모른다 하면
이 무슨 기만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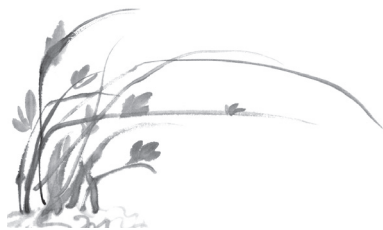
참나는 참나가 아닐 수 없다
아무리 아닌 척 해도



* 인도의 종교가(1440~1518). 유일한 신에 대한 박티(절대적 헌신)를 기축으로, 힌두교와 이슬람을 비판적으로 통합하고, 전혀 독자적인 일신교를 제창하였다.

시간은 없다
생각이 없거나 깊이 잠들었을 때
그때 시간이 있는가
과거, 곧 기억은 지금 이 순간 떠오른 생각이고
미래 또한 지금 떠오른 생각'이다
현재라는 순간은 붙잡을 수 없고
붙잡으려는 찰나에 이미 사라진다
남은 것은 오직,
시간을 초월한 현재,
영원한 지금뿐.

난초를 보려면
급행열차에서 내려야 한다
삶을 단순히 하고
낮에 꾸는 꿈을 멈추라
‘나’라는 개념과
아무개이도록 하는 장식품에서
떨어져 나오라 그리고
눈앞에 있는 것을 보라



위대한 이해란
결코 이해할 수 없음을 아는 것이다

아무리 애써도
결코 이해할 수 없음을
보게 될 때의 커다란 안도감
그저 내맡겨야 한다는 것
그것이 바로 이해다

마음으로는 결코
이해에 가닿을 수 없지만
가슴은 이미 알고 있다

어리석은 자는 말한다
“나는 이해했다”
그러나 이해가 실제로 일어날 때는
“나는 이해했다”고 말할 이는
남아 있지 않다

진실로,
이해할 것은 아무것도 없고
이해할 누구도 없다

주인 :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손님 : 여기서 구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주인 :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찾으시는 게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손님 : 평화와 행복을 찾습니다.

주인 : 여기서는 아무것도 약속드리지 않습니다.

당근도, 각설탕도 없습니다.

손님 : 그럼 뭘니까?

주인 : 손님께선 모든 것을 내놓되, 아무것도 바래선 안 됩니다.

그래도 관심 있습니까?

손님 : 그러려고 왔는걸요.

세상의 유혹은 공허하더이다.

제가 뭘 드리면 됩니까?

주인 : 손님이 품고 계신 꿈, 환상, 이미지, 허영과
손님의 과거와 미래, 그리고 동전 한푼까지
다 내놓으셔야 합니다.

손님 : 그야 당연히 그래야지요.

그러면 전 빈털터리가 되는 겁니까?

주인 : 여전히 무언가를 지키고 싶다면

잘못 찾아오신 겁니다.

그것이 엄연한 규칙입니다.

손님 : 그리고 나면 무엇이 남을까요?

주인 : 왜 그런 질문을 합니까? 현상세계에 존재하는
장난감은 다 끝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까?
실재하지 않는 것은 모조리 없어질 겁니다.

그 후에 무엇이 남을지는 두고 보시지요.

아니면 저 아래 건물에 한번 가보시는 게 어떻습니까.

3년 과정의 코스를 마치면 공인된 수료증을 준다고 합니다.

손님 : 그런 거라면 이미 한 서랍 가득 있습니다.

좀 생각해본 뒤에 내일 다시 와도 되겠습니까?

주인 : 내일은 없습니다.

시간이란 것은 없습니다.

지금뿐이지요.

(끝) 

- 이 글은 《The Mirage of Separation》에서 발췌하였습니다.
- 이 글은 미내사의 허락 없이 무단 전재나 재배포를 할 수 없습니다.

저자 | **빌리 도일** Billy Doyle | 어렸을 적부터 영적 성향이 강했던 그는 20대에 동양사상의 비이원적 가르침을 접하고 탐구하게 되면서 비이원론에 깊이 감화되었다. 라마나 마하리쉬, 니사르가 다타 마하라지, J. 크리슈나무르티, 아트마난다 크리슈나 메논의 가르침에서 깊은 영향을 받았고, 아드바이타와 요가의 대가인 진 클라인을 만나고부터는 그가 자신의 스승임을 알아보고 수년간 교류해왔다. 현재 런던에 거주하고 있으며 진 클라인이 서구에 소개한 접근법인 카슈미르 전통 요가를 가르치고 있다.

역자 | **김연주** | 〈지금여기〉번역위원